

풍류남도나들이

선비옷 차려입고 옛사람의 풍류 즐겨볼까

환벽당·취가정·소쇄원·식영정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열려
조선 시대 선비들처럼
글씨 쓰고 차 마시고 강의 들어
모든 프로그램 무료 참여 가능



2017 풍류남도나들이 '누정 풍류차사'가 오는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식영정, 소쇄원 등 광주·전남 지역 누정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22일 열린 첫 행사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환벽당, 취가정, 소쇄원, 식영정. 광주와 담양의 누정들에 발을 들여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곳곳에 새잎이 돋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울긋불긋 단풍이 든다. 광주시, 광주시 북구, 담양군은 지난해 '풍류남도나들이'라는 타이틀로 매주 토요일 누정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아름다운 풍광도 즐기고 문화도 향유하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이었다.

올해도 '누가(樓歌) 풍류차사'를 주제로 오는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행사가 이어진다. '풍류차사(風流處士)'는 자연과 벗하고 학식을 닦으며 풍류를 즐기며 사는 멋스러운 선비를 말한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그 시대를 살다간 이들과 선비복을 차려입은 채 글씨를 쓰고, 차를 마시고, 강의를 듣는다. 또 다양한 장르 예술인들이 펼치는 '풍류 달빛마당'의 감동적인 공연을 감상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다. 체험, 교육, 공연이 어우러진 복합 프로그램이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주관한 지난 22일 첫 행사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며 추억을 쌓았다.

'환벽책애사'는 옛 문인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던 교육 공간 환벽당에서 '책'과 관련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책갈피와 전통 책 묶음을 함께 만들어본다.

'식영 풍류도원'은 식영정과 부영당, 서하당 일원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선비복을 입고 다례체험, 가사 쓰기, 서화 체험 등을 해본다. 서예가 박종삼씨가 함께한다.

'취가 화전놀이·김덕령 장군' 체험은 김덕령 장군의 혼을 위로하고 충정을 기리기



선비체험에 참여한 어린이의 모습.

위해 세운 취가정에서 꽃지짐, 파전 등 전통음식을 만들어보는 음식 체험이다. 또 김덕령 장군처럼 갑옷과 장검을 직접 입어 볼 수도 있다.

'풍류달빛 공연'은 매일 보름 가까운 토요일 오후 7시 한국가사문학관과 서하당 일원에서 전통악기 연주, 판소리, 전통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 20일 첫 공연을 시작하며 광주MBC '우리가락 우리 문화'에서 월 1회 녹화방송된다.

'생생한 소쇄원 48영'은 지역 관광해설가의 소쇄원에 관한 해설과 재연 배우들의 공연을 통해 '살아있는 소쇄원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밖에 '환벽추구학당'은 강기욱 고봉학술원장과 함께 한자와 인문교육 등을 진행하며 '식영 인문학당'은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 탄생지인 식영정에서 이정옥(한국사기문화해설연구원장)씨의 강의로 성산별곡을 낭송하고 인문학 강좌를 듣는 기획이다.

각 프로그램은 현장 신청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환벽 추구학당'은 전화 사전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 무료 운영되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32-21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베토벤 '바이올린소나타' 전곡 연주 여정

김도연 '소나타 10번' 공연
5월 2일 금호아트홀

주회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피아니스트 마미 미야케와 함께 특별히 첼리스트 김재준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베토벤 '바이올린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열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씨가 세번째 무대를 마쳤다. 5월 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베를린 국립예술대학,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김씨는 귀국 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광주 솔리스트앙상블, 아르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앙상블 베를리아나와 앙상블 마주얼 리더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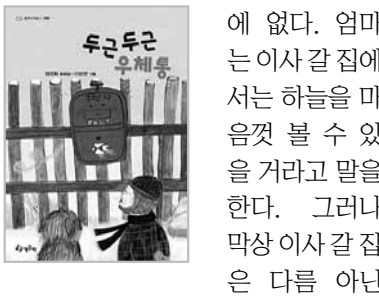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연주회는 오는 9월 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레퍼토리는 소나타 2번과 3번, 9번이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4301-1929.

특별히 이번 공연에서는 소나타 작품은 아니지만 그녀가 오래 전부터 연주하고 싶었던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대공'을 연주한다. 김씨의 전곡 연주 여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부에 지친 아이들의 희망찾기 '두근두근 우체통'

동화작가 염연화 첫 작품집



요즘 아이들의 일상은 어른들의 삶만큼이나 녹록치 않다. 학원과 공부, 경쟁은 한창 뛰어놀 아이들의 꿈을 가두어버린다. 또한 친진난해야 할 아이들의 마음에 어른들의 잦아들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도 한다. 염연화 동화작가의 첫 작품집 '두근두근 우체통'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희망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다. 모두 8편의 작품은 아이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거나, 고난에 처한 아이들을 위로해주는 동화들이다.

에 없다. 엄마는 이사 갈 집에서는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막상 이사 갈 집은 다름 아닌 옥탑방이다. 딸에게 이사 갈 집에 대해 당당히 말할 수 없는 엄마의 작정한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온다.

표제작 '두근두근 우체통'은 쓸모없어진 우체통의 새로운 변신에 초점을 맞춘다. "세상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참 멋진 말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잖아?" 작가는 예리한 관찰력과 참신한 상상력으로 아이들의 현실을 정감어린 필치로 되짚어낸다.

이밖에도 판타지 메이크업으로 할머니와 처음이자 마지막 추억을 쌓는 '꽃가시',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홀로서기를 그린 '토끼이빨', 사춘기 소녀의 마음을 담은 '아빠를 후원합니다' 등 잔잔한 감동의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꿈꾸는 쌍떡잎'은 반지하에 사는 예인이 가족의 이사 가는 날을 그리고 있다. 예이네는 오래 살아 정이 들었지만 재개발로 반지하를 떠날 수밖에

동화마다 인물의 표정을 유머러스하게 형상화한 이승연 화가의 삽화도 볼거리다. 인물의 개성적인 표정을 섬세한 순간에서조차 웃음을 짓게 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염 작가는 2012년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해 2013년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제5회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경진대회

광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유망 여성소모임들의 경험 무대가 펼쳐진다.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황인숙)은 광주지역의 큰 자원이 될 여성소모임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여성친화

도시정책 의제 발굴을 위해 '제5회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문화, 돌봄, 생태·환경, 안전·건강, 일자리·경제, 학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5인 이상의 광주지역 여성소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공개심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차에서 선정된 15개 팀은 운영실비(50만원)를 지원 받아 4개월 동안 소모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공개심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차에서 선정된 15개 팀은 운영실비(50만원)를 지원 받아 4개월 동안 소모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15개 팀은 2차 결과발표회와 현장공개심사를 통해 최고 70만원에서부터 15만원의 상금을 수여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지역여성정책의 제발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원하는 소모임, 단체, 기관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062-670-05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2~5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경
6 743㎡ | 전문병원 및 피부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경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